

한국여성농민운동의 산 증인이
며 지역민주운동의 대모로 알려진
김영자(49·여·성남 큰우리소비자
협동조합 이사장)
씨가 위암선고를
받고 투병중 끝
내 숨을 거뒀다
타까움을 던져주었다.

1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병원
영안실에는 곳은 날씨에도 살아생
전 사회민주화와 여성농민에게 쏟
았던 김씨의 뜨거운 열정을 기리
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
았다.

지난 66년 서울대 농대를 졸업

한 뒤 정읍농고 교사 생활을 시작
으로 이어진 김씨의 삶은 자주적
인 여성농민운동 조직의 건설과
지역운동의 대모로서의 활동에 이
르기까지 25년간 “고난의 가시밭
길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은 모
습”이었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설

93. 9. 13

여성농민운동 대모의 안타까운 죽음

명이다.

지난 77년 김씨가 산파노릇을
한 한국가톨릭 농촌여성회는 해방
이후 최초의 전국적인 여성농민
단일조직으로서 이후 89년 전국여
성농민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전국
60개 군에 조직을 갖춘 ‘전국여성
농민회 총연합’으로 확고하게 뿌

리를 내리고 있다.

전국농촌탁아소연합 준비위원장
엄영애(54·여)씨는 “슬하에 4남매
를 둔 어머니이면서도 아내(남편
은 김준기 전 신구전문대 교수)로
서의 역할을 소중히 여겼던 김씨
는 여성농민의 권리회복을 위해

지칠 줄 모르는
삶을 살아왔다”
고 회상하며 “운
명하기 얼마전에

도 그동안 모아온 여성농민운동사
자료 정리와 여성농민회의 재정
자립을 염려했다”고 말했다.

김씨의 영결식은 13일 오전 9시
성남병원에서 ‘여성농민장’으로 치
러진 뒤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될
예정이다.

성남/홍용덕 기자